

ORDINARY

MAGAZINE

P033 MB 152 Tulip Dallas Fringed

P034 MB 211 Lily Casa Blanca

P035 MB 244 Clematis

©Kehrer Verlag (Germany)

P033-035 생애 주기를 포착하다, 켄지 토마의 <The Most Beautiful Flowers>

켄지 토마Kenji Toma의 이 사진들이 극도로 섬세하게 그린 삽화처럼 보이는 것은 19세기의 저명한 식물 학자였던 피에르 조제프 르두테Pierre-Joseph Redoute의 일러스트 꽃 도감 <Choices of the Most Beautiful FlowersChoix des Plus Belles Fleurs>에 대한 오마주이기 때문이다. 토마의 사진집에 서문을 쓴 큐레이터 코헤이 아베는 19세기에 활동한 사진가 칼 블로스펠트Karl Blossfeldt, 그리고 17세기 일본의 화풍 중 하나였던 린파 스킨Rinpa School과의 깊은 연관성도 지적한다. 블로스펠트의 작품집 <Art Forms in Nature>가 식물의 형태를 하나의 예술적 형식으로서 복제해내는 사진의 모음이었다면 린파 스킨은 다양한 색채와 금, 은 등 값비싼 재료를 활용해 꽃의 형태를 추상적이고 기이하게 묘사했다. 켄지 토마의 작품은 있는 그대로 찍어낸 사진과 주관적 요소를 가미한 그림 사이 경계에 이슬이슬하게 걸쳐 있다. 바로 그 지점에 토마의 문제의식이 자리한다. 도감에서의 꽃 이미지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 페이지에 최대의 미학과 정보를 담기 위해 인위적으로 변형된다는 것이다. “컬러 사진 발명 이전에 그 꽃의 가장 정확한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그린 그림은 아이러니하게도 ‘도감’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조화를 품게 되죠.” 그래서 그는 태생적으로 사실을 추구하는 사진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거꾸로 사실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만든다. 이 사진들은 포커스 브래킷focus-bracket 기법으로 촬영되었다. 한 번에 수백 가지 조금씩 다른 포커스로 촬영한다는 뜻이다. 한 번에 하나의 초점밖에 두지 못하는 사람의 시각과 정반대로, 이미지는 원근감 없이 납작해진다. 이 ‘완벽한’ 포커스 때문에 켄지 토마의 ‘사실적인’ 꽃 이미지도 어딘가 잘못되어 보이기엔 마찬가지이지만, 그래서 신선하고 매력적이다. 그가 이렇듯 의도된 강박으로 꽃의 아름다움을 포착하게 된 것은 한편으로 그가 뉴욕의 잘 나가는 상업 사진가이기 때문이다. 매일 광고 이미지의 홍수 속에 관성적으로 이끌려 다니는 시각을 환기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능동적으로 채집하려는 노력이다. “동네 꽃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철 꽃들만 골라요. 때를 놓치면 또 한 해를 기다려야 하므로, 한 번에 최대한 많은 꽃을 가져옵니다.” 조심스럽게 스튜디오로 가져온 꽃을 눈앞에 두고, 그는 부러 절정이 지나기를 기다려 촬영하기도 한다. 모양과 색이 변하면서 가장자리부터 미세하게 주름이 잡히는 모습에 셔터를 누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. 그 결과물을 보면,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포착한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. 르두테가 가장 아름다운 꽃들을 골라 이상적인 표본을 그렸다면 토마는 꽃의 탄생부터 소멸 가운데 단 하나의 사실적인 순간을 골라 가장 치밀하게 찍었다.



